

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

천사를 목격한 롯은 즉시 일어났다.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도 천사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려 했다.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밤을 자신의 집에서 보낼 것을 강권했다. 천사들은 소돔의 타락한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거리에서 밤을 세우고자 했으나 롯이 만류했다. 이방인이 소돔의 밤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

**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
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
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/ 창세기 19:4-5**

밤이 깊었을 때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. 사람들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. ‘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’. 이 말은 ‘너랑 나랑 무슨 상관?’할 때의 ‘상관’이 아니다. 남색을 의미한다. 지금 소돔 남자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몰려와서 집단강간을 하겠으니 저녁에 온 손님들을 끌어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(남색을 뜻하는 영어단어 sodomy는 소돔에서 유래했다).

청하노니 내 형제들아

롯이 집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. 문을 등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. 흥분한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롯의 제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.

**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
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
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/ 창세기 19:8**

흥분한 무리에게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니. 그것도 결혼할 사위들이 있는 약혼한 딸들이었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? 천사들을 그만큼 보호하고 싶었을까? 대체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한단 말인가? 이미 롯의 사고구조가 소돔 스타일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?

소돔 사람들을 부르는 롯의 호칭은 ‘내 형제들’이었다.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소돔 사람들은 롯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.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‘들어와서 거류하는’ 사람에 불과했다. 어디 굴러들어온 주제에 성문에 앉아서 한 자리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?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.

**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
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
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/ 창세기 19:9**

결국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.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만하면 충분했다.

롯은 참담한 실패를 맞는다.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. 롯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잃었다. 성문에는 앉았을지 몰라도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. 손님을 보호하는 주인의 책임도 다 하지 못했다. 딸들을 보호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다 하지 못했다. 사위들도 롯의 말을 우습게 안다. 롯이 사랑한 소돔이 롯에게 남긴 것이 이것이었다.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롯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.